

# 美대선 우편투표 논란...연방우체국 개편 공방

분류기 재배치·시간의 근무 제한 민주당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연방우체국장 청문회 출석 압박 정부 "보편적 우편투표 문제 제기"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적 우편투표'에 제동을 거는 가운데 민주당은 하원을 조기소집하고 연방우체국장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와 민주당은 대선 우편투표 확대와 연방우체국(USPS)의 서비스 지연 문제를 놓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적 슈머 상원 원내대표,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루이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에 오는 24일 하원 청문회 증언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난 6월 임명된 드조이 국장은 최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우편 분류 기계를 재배치하고 시간 외 근무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우편물 배송이 지연되면서 우편투표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반대 기조를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USPS를 조종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밝혔다"며 "청문회는 전반적인 우체국의 운영 및 조직 변화를 점검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들은 "연방우체국장과 우체국 지도부는 선거 몇 달 전에 수백만 명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위협하는 이런 위험한 새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의회와 미국민에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한 오는 22일 하원을 조기 소집해 USPS 운영방안을 개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미국을 위한 배달법'(Delivering for America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하원 감독개혁위원장 캐럴린 멀로니(민주) 의원이 지난 주 초 발의했다.

펠로시 의장은 성명에서 "팬데믹 시기에 우체국이 중추 선거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NBC '미 더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우편투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

려는 시도라며 "이건 우체국에 대한 논쟁만이 아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사람들이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ABC 방송의 '디스 워크' 인터뷰에서도 우체국의 움직임에 대해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CNN의 같은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문제는 투표용지를 요청하지 않아도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이를 보내주는 '보편적 우편투표'에 관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다.

메도스 실장은 유권자 명단이 정확하지 않으며 투표용지가 예전 주소나 이미 숨진 사람의 집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11월 3일 투표 결과를 알 수 없고 몇 달 동안 결과를 모를 수도 있다"며 "그것은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245〉한탁주

한탁주(韓德曹1152-1207)는 남송 상주 안양 출신이다. 자는 절부(節夫)로 복송의 재상을 지낸 한기(韓琦)의 5세손이다. 남송의 영종때 재상으로 정권을 좌우했다. 금과의 화의를 깨고 전쟁을 일으켰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이후 살해되었다.

모친은 남송 고종의 황후인 오씨의 여동생이다. 명군 효종이 황태자인 조돈에게 양위하니 2대 황제 광종이다. 우둔한 광종을 이항후가 좌지우지했다. 질투가 심해 광종이 아끼는 황귀비를 죽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심질(心疾)이 악화되었다. 이항후의 전횡에 황실이 동요했다. 황실의 최고 어른인 태황태후 오씨는 재상 조여우와 한탁주와 결탁해 광종을 내쳤다. 효종이 죽자

이 곤궁했다.

속적인 금나라 토벌을 추진한 것은 자신의 약화된 권력을 보전하려는 보신책이었다. 남송 효종과 금 세종간 화약으로 40년간 금과 남송은 화평을 유지했다. 금은 북방 유목민의 빈번한 남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194년 황하가 크게 범람하는 일이 발생했다.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이 불가피했다. 장기간 평화로 군사조직인 맹안·모극의 군사력과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다. 한탁주는 1205년 정부와 군사를 총괄하는 평장군국사(平章軍國事)가 되어 전권을 장악했다. 1206년 사천의 선무사 오희가 섬서에서 진공했다. 그러나 금나라는 선전했다. 금의 꼬임에 빠져 오희가 금에 항복하고 촉왕에 봉해지는데 일어난다. 1207년 오희가 부하에게 살해당하면서 양국의 전투는 일

## 정권 좌지우지한 남송 영종때 재상

광종이 심질로 인해 상주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오씨는 증손인 황태자 조확이 대리토록 명했다. 이를 계기로 황태자가 즉위하니 영종이다. 영종의 비가 한탁주의 질녀다. 영종 즉위에 공을 세운 한탁주는 권력을 독차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재상인 조여우는 그의 인품을 하찮게 여겨 그를 멀리했다. 방어사(防禦使)라는 비교적 낮은 지위를 주었다. 권모술수에 능한 한탁주는 조여우를 모함해 1195년(경원 원년) 조여우를 내쳤다. 시강 주희도 파면하였다. 주필대, 유정, 양안, 팽귀년 등 주자학파 59명이 관직에 등용되는 것을 금하였다. 1198년 주자학을 거짓 학문인 위학(僞學)으로 탄압하였다. 역사에서는 이를 경원위학지금(慶元僞學之禁)이라 한다. 명대의 사상이 이탁오는 주자학이 타격을 받은 것은 주희의 실책으로 평하였다. "도학이 화를 입은 것은 주희가 이를 자초한 것이다"라고 기록하였다. 한탁주는 이후 10년간 재상으로 권력을 독점했다. 뒤를 밀어주던 황후와 황태후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자 권력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영종비 한황후의 사망에 큰 타격을 입었다. 나빠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환으로 애국시인으로 알려진 육유(陸游)를 국사편찬의 직책에 추천했다. 육유는 집의 물건을 팔아야 할 정도로 삶

진일되었다. 금은 준비 부담으로 남송은 전선의 불리로 탈출구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었다. 양국은 다시 화평의 교섭에 나섰다. 금은 준비를 주로 조달한 산동 지방의 민정이 불안해지면서 남송과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부담이 많았다. 금은 화평의 조건으로 개전의 책임이 있는 한탁주의 목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양국의 국경선인 화하의 남쪽 양쪽 땅의 할양, 세폐 증액 등이 포함되었다.

영종의 후비는 양씨로 그녀의 오빠인 양차산은 예비시랑인 사미원과 힘을 합쳐 한탁주를 제거하려 하였다. 사미원은 효종때 재상인 사호의 아들이다. 사미원과 양차산은 하진을 시켜 1207년 11월 옥진원이라는 곳에서 한탁주를 암살했다. 그의 목은 금으로 보내졌다. 1208년 양국은 화약을 맺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이 점령한 회남지방은 남송에게 반환. 숙질 관계를 백질(伯姪) 관계로 변경. 세폐는 은 30만냥 비단 30만필로 증액. 남송은 전비배상금으로 300만냥을 금에게 제공. 금은 남송의 내부 분열을 꾀뚫어 보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남송은 허약한 군사력이 만천하에 알려지는 꼴이 되었다. 금은 이후 혼란에 빠져 1234년 몽고족에 멸망했다. 사미원은 이종을 옹립해서 26년간 재상의 지위를 유지했다.

## 미 민주 전당대회 개막 바이든 대선후보 지명

미국 민주당이 11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17일(현지시간) 시작한다.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전당대회는 당초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례 없는 화상 행사 방식으로 치러진다.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형 현장 행사는 무산됐지만, 거물급 인사가 총출동해 '지원 사격'에 나서는 성대한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4일간 밀워키에서 낮 시간대에 각종 현안과 주제를 다루는 위원회 모임과 회의가 진행되며 본 행사는 동부시간 기준으로 매일 밤 9~11시 두시간씩 화상으로 열린다. 축제의 막을 여는 17일에는 경선에서 바이든의 라이벌이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를 비롯해 앤드루 쿠오모 뉴욕지사, 그레전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지난 대선 때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섰던 존 케 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 등이 지원 연설을 한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주별 경선 결과를 반영한 대의원 공개투표가 '롤 콜'(Roll Call·호명) 투표로 이뤄진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2004년 민주당 대선후보 존 케리 전 국무장관, 민주당 내 유색인종 여성의원 4명 중 한 명인 알렉산드리아 오가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이 연설한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연단에 오른다. /연합뉴스



모리셔스 해역 두 동간 난日晒물선 인도양 남부 모리셔스 해역에서 3주전 좌초한 일본 화물선 MV 와카시호가 16일(현지시간) 두 동간이 난 채로 기름을 흘리고 있다. 이 화물선에선 사고 이후 약 1000t의 원유가 새어나오며 천해의 자연환경을 오염시켰다. 일본 해운사 측은 지난 13일 사고 선박에 남아있던 원유 3000t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의 다 끝냈다고 밝혔으나 이날 현재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연합뉴스

## 말레이시아서 전염력 10배 강한 코로나19 변종 발견

말레이시아에서 기존 코로나19보다 전염력이 10배나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누르 히삼 압둘라 말레이 보건총괄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바강가 등 바이러스 집중 발생 지역 두 곳에서 말레이 의학연구소에 의해 4건의 돌연변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 바이러스를 'D614G'로 명

명했다. 이 바이러스는 인도와 필리핀 등에서 돌아온 이들에게서 지난달 발견됐으며 해당 지역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압둘라 총괄국장은 "변종은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원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10배가량 강하기 때문에 슈퍼전파자에 의해 쉽게 옮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종으로 인해 기존 백신 연구가 불완전해지거나 효과가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초 '셀'(Cell) 저널에서는 전파

속도가 빠른 변종 'G614'가 유럽과 미국에서 'D614'라고 불리는 바이러스를 거의 대체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당시 다국적 연구진은 변종 바이러스가 코로나 비강, 목에서 더욱 빨리 증식해 전파 속도 역시 기존보다 3~9배 높다고 보고했다. 다만 영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 1천명을 분석한 결과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서 상태가 더욱 심각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첨색료 무합성향료